



전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특별사진전을 연다. 사진은 1960년 대학 전경(왼쪽)과, 1952년 최초의 개교기념식(오른쪽).

70년 역사 속 대학의 모습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의 지난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한 특별 사진전 '사진으로 보는 70년의 발자취'를 통해서다.

지난 20일 전북대박물관을 시작으로 11월 6일부터 중앙도서관, 13일부터 뉴실크로드센터 등 순회전으로 열린다. 사진전 개막행사는 20일 오후 3시 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북대 역사를 상징하는 46점의 사진이 걸리는 이번 전시는 대학의 시작과 교정과 건물,

전북대, 개교 70주년 맞아 특별 사진전 개최
사진 46점 전시 교정·건물·생활 등으로 구성

대학생활 등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대 설립의 모체가 됐던 이리농과대학, 전주명륜대학, 군산대학을 비롯해 최초의 개교기념식, 초기 학교 전경, 대학본부 등 전북대 첫걸음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초기 상대나 기숙사, 대학 앞 철길, 박물관 앞 연못 등 추억의 장소도 아련한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학시험과 합격자 발표, 수업 광경, 도서관 열람실 풍경, 대학 축제, 동아리 활동 등

당시의 대학생활에서부터 송충이 잡기, 우유 마시기 대회, 군사훈련, 민주화 투쟁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낯설어진 풍경도 이채로움을 더한다.

특히 전북대는 이번 전시에서 모두 담지 못한 사진들을 모아 '사진으로 본 전북대학교 7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남호 총장은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축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유기적으로 잇는 서사하기에 옛것을 본받되 변화할 줄 알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진전이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전시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도립국악원, 26일 김세미의 심청가

관소리 종가의 소릿제 구현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낮은 소리, 시대를 담은 소리'인 김세미의 심청가 연창을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선보인다.

이날 무대에 오르는 창곡단 김세미 단원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추담 故 흥정택 명창의 외손녀로, 흥정택·오정숙 명인을 사사했다.

남원 춘향제 전국관소리경연대회에서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후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 온 그녀는 탄탄한 소리공력과 수려한 성음, 그리고 정교한 너름새가 특징이다.

이번 공연에선 관소리 종가의 소릿제를 구현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미는 동초제 '심청가' 범피종류에서 어질더질 대목까지를 선보인다.

특히 이날 공연에선 뱃사람들에게 뚝이 팔린 심청이 불쌍한 아버지를 홀로 남겨 두고 유유히 바다 위로 떠가는 모양을 묘사하는 범피종류 대목부터 끝까지(어질더질 대목)를 연창한다. 고수에는 36회 전국 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종호 선생이 함께 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을 하지 못한 관객을 위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오후 6시30분) 현장 좌석권을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정해은 기자

어질더질 대목까지를 선보인다.

특히 이날 공연에선 뱃사람들에게 뚝이 팔린 심청이 불쌍한 아버지를 홀로 남겨 두고 유유히 바다 위로 떠가는 모양을 묘사하는 범피종류 대목부터 끝까지(어질더질 대목)를 연창한다. 고수에는 36회 전국 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종호 선생이 함께 한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을 하지 못한 관객을 위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오후 6시30분) 현장 좌석권을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정해은 기자

내일 교동아트미술관 기념책자 발간식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전주교동아트미술관(관장 김완순)이 그간의 교동아트 기록을 담은 기념책자 발간식을 24일 오후 4시 50분 미술관에서 갖는다.

미술관의 발자취가 담긴 이 기념책에는 교동아트가 이루어낸 성과와 교동아트가 만난 작가들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10주년 기념전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한옥에 스미다'가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전시에는 그동안 지역 내에서 전주·서울간 미술교류 전시,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아트 워크숍을 통한 전시 등 미술의 다양성을 확장해 온 아트그룹 '아띠'가 참여한다.

교동미술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한옥에 스미다'에는 한옥마을의 중심에서 문화와 예술을 지켜온 교동아트미술관의 상징성이 내포돼 있다. /정해은 기자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을' 11월 초 개봉

삶의 이유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는 가족. 하지만 누구보다 가깝고 편안하다는 이유로 이해와 소통은 외면한 채, '가족'이라면 응당 ~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만 강조하기 십상이다. 그로 인한 기대감은 때론 갈등을 부추기며 생채기를 내기도 한다.

가정이라는 한울타리에 있지만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사랑을 고민해 하는 따뜻한 가족 영화가 올 가을 관객들을 찾아간다.

CBS와 와호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가족 영화 '내게 남은 사랑'이 11월 2일 전북지역 멀티플렉스와 작은영화관에서 개봉한다.

진광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는 우리네 가장처럼 만난 조연 같은 배우 심지수가 대한민국 대표 가장 '김봉용', 배우 전미선이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살림하는 엄마 '이화연'으로 분해 열연을 펼친다.

한편 전북CBS는 이 영화의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해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담은 연탄을 배달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JTV 전주방송 오늘자 인사 단행

JTV 전주방송이 23일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단행된 인사로 ▲전승철 편성제작부장 겸 편성팀장, ▲이제근 뉴미디어국장, ▲김철 시기획팀장, ▲이승환 보도국 취재1팀장, ▲정운성 보도국 취재2팀장 등 5명이다. /정해은 기자

국내 최고 서예가의 작품, 개교 70년 전북대에 걸리다

하석 박원규 선생 특별전, 26일까지
대학 박물관서 관람객 눈길 사로잡아



영화 '춘향전'과 '취화선'의 글씨를 쓴 서예가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하석 박원규 선생의 수준 높은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린다.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법학과 동문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석 박원규 선생의 특별 서예전을 마련한 것.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인사동 우림 갤러리에서 한 차례 선보였던 이 전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전북대 박물관에서 다시 한 번 전시된다.

전북대는 20일 오후 5시 이남호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과 하석 박원규 선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0주년 기념 서예전 개막식을 가졌다.

하석 선생과 문하생으로 구성된 겸수회(兼修會)가 꾸미는 이번 전시에서는 80여

점의 크고 작은 작품들이 걸린다.

특히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로 된 작품 세 점으로 이뤄진 대작과 가로 3미터의 크기의 '강건독실 휘광일신기덕(剛健篤實 輝光日新其德)'이라는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주역의 대축괘(大畜卦) 단전(象傳)에 나오는 이 말은 '강건하면서 휘황찬란하게 될 것이고 그 덕은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뜻이다.

전북대 개교 70주년을 맞아 영원히 강건하고 독실하여 그 빛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

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덕망이 향상 새롭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하석 선생의 문하생들의 작품은 모두 대학에 기증되어 전시회 기간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모두 대학 발전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남호 총장은 "하석 선생은 탁월한 실력으로 동양 예술의 정수인 서예의 새 지평을 열었으며, 모교인 우리대학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높였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서예의 아름다움과 전북대학교라는 이름이 온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원규 선생은 "전북대 개교 7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에서 전시를 제안해왔을 때 젊은 시절 모교에서의 시간이 눈앞에 스쳐가며 그 어떤 공간에서의 전시보다 기쁜 마음"이라며 "모교 문을 나선 지 40여 년 만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가지고 다시 이 문으로 들어설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예향 전주에서
세계서예인의 축제가 열립니다.

서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이 함께 나누는 문자예술의 축제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맛과 소리와 서예의 고향 전북에서 열립니다.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제11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2017 World Calligraphy Biennale of Jeollabuk-do

순수와 융용
2017. 10. 21[±] - 11. 19^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북예술회관

주최: 전라북도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ILJIN 일진그룹

■ 행사안내		
서예는 행운을 싣고 - 매주 일요일 16시 추첨	로비	
명사서예전		
생활서예전		갤러리 S
세계한국문화원 서예 수장성전		
서론서예전		
작가와외의 만남 -10.28(토) 호암 윤정용 / 11.11(토) 현봉 최수일		갤러리 O
탁본체험		
나도 서예가		갤러리 R (로비)
서예, 책을 만나다전		
서론서예전		
전, 서각의 어울림전		갤러리 R
경필서예전		
양생서예전		갤러리 I
전북우수활동작가서예전		
등불서예전		아외전시
JS호텔 학술대회 -10월 22일		세미나홀
전북 예술회관 2015기념공모전 대상작가 초대전		
2017기념공모전		
국립 전주박물관 석전 황옥전		
선인들이 즐겨 쓴 중국 글씨 본		
감람서예관	강암 송성용전	